

우리나라의 소득빈곤 및 자산빈곤의 이행추이분석

김명규* · 임병인**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7-15차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을 소득과 자산기준으로 4분하여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에 동시에 직면하는 구조적 빈곤과 소득은 빈곤하나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확률적 빈곤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첫째 소득빈곤계층의 근로소득이 전체 가구의 1/10에 불과하였지만, 빈곤계층에 지급되는 공적 이전소득은 2003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둘째, 소득빈곤층 연령은 소득비빈곤층보다 약 58세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연령이고, 학력도 중졸 수준으로 낮아 최근의 노인빈곤율 현황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자산비빈곤계층의 총자산은 자산빈곤계층의 10배 수준이나 양자의 격차가 좁아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부채는 자산빈곤계층이 비빈곤계층보다 훨씬 더 많았다. 또한 자산빈곤계층의 부채가 자산평가액을 초과하여 순자산이 음(-)인 반면에 자산비빈곤계층은 양(+)이었다. 넷째, 근로소득 기준으로 본 구조적 빈곤은 2003년-2006년까지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해 점차 낮아지다가 2007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시장소득기준으로는 2007년까지 하락, 이후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구조적 빈곤계층은 부채가 부동산자산 및 금융자산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아 일단 소득빈곤에 떨어지면 자산이 거의 없어 말 그대로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음을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확률적인 빈곤은 근로소득기준으로 전반적인 증가추세, 시장소득 기준으로 미미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확률적 빈곤계층의 자산규모는 구조적 빈곤계층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고, 부채는 작아 자산구조 자체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용어에서 나타나듯이 구조적인 빈곤에 직면하기보다는 확률적으로 빈곤층에 떨어져 구조적 빈곤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확률적 빈곤계층의 소득과 자산상태 구조적 빈곤 계층에 비하여 자산과 소득 두 측면에서 양호해지고 있는 것에서 확인 가능하다. 여섯째, 이행확률의 추이 분석결과, 확률적 빈곤층은 일시적 소득 빈곤 상태에 있지만 구조적 빈곤층은 빈곤 함정에서 벗어날 확률이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구조적 빈곤층이 소득빈곤에서 벗어나더라도 단기적으로 자산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구조적 빈곤을 개선하여 당분간 확률적 빈곤 또는 자산비빈곤계층으로 이행시키려면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더 나아가 빈곤계층의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자산빈곤 탈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빈곤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일정한 수준 미만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너무나 당연한 의문이지만, 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해고에 따른 실업, 질병으로 인한 휴직,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기 위한 일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kolosu@naver.com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billforest@hanmail.net

시적인 실업 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불행한 현상을 초래하는 사건으로 외부의 충격, 예를 들어 1997년 말 외환위기,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 이후 불거진 미국발 금융위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소득 저하로 인한 빈곤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일정기간이라도 예방해주는 것이 바로 평상시에 적립해놓은 각종 자산이다. 이것이 바로 저축하는 이유일 것이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의 대비인 저축 외에 실업보험과 긴급지원제도 등과 같은 공적인 제도도 있다. 저축행위를 통하여 적립한 금융자산, 또는 일정한 금액이 된 금융자산을 이용하여 구입한 주택,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은 유동성 또는 환금성이 있는 한 소득 부족을 부분적으로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빈곤에 처할 상황에 직면한 개인들의 소비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자산을 평상시에 어느 정도 적립하여 보유해야 소득빈곤을 당분간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가이다. 그 기간은 평균 실업급여 수령기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구조화되고 고착화된 실업이 아니라면 일정기간 동안 소비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자산빈곤 수준을 월기준 최저생계비의 6개월치를 자산빈곤선의 기준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남상호, 2009). 이를 자산빈곤선 중에서도 절대자산빈곤선으로 명명한다.

이런 점에서 자산보유는 소득빈곤을 일정기간 해소할 수 있어 빈곤해소 또는 빈곤율 축소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에 동시에 해당되는 가구일 경우, 빈곤이 장기화되거나 고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한국노동패널자료』 7-15차 자료로써 소득빈곤과 자산빈곤 여부를 살펴보고, 둘째 그에 근거하여 구조적 빈곤계층과 확률적 빈곤계층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국내외의 빈곤 관련 연구를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으로 대별하여 논의한다. 3장에서는 자산기반 빈곤 모형을 시대별 빈곤 개념의 연혁을 살펴보면서 상술한 뒤, 그림을 통해서 구조적 빈곤과 확률적 빈곤을 제시하고 설명한다. 4장에서는 사용자료인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대하여 개괄한 뒤, 소득 및 자산빈곤의 개념과 판정기준을 제시한다. 이어서 3개 소득기준 소득빈곤과 자산빈곤 추이를 연도별로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의 변화와 함께 제시한다. 또한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을 연계하여 구할 수 있는 구조적 빈곤과 확률적 빈곤계층을 찾아 그들의 특성을 찾아 분석한다. 이어서 구조적 빈곤과 확률적 빈곤의 이행확률을 계산하여 제시하면서 그것의 경제학적인 의미를 논의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분석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고 그로부터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기존 연구

먼저 본 연구의 주요 주제인 자산빈곤 관련 국내외 연구를 논의해본다. 해외 연구로는 Oliver and

Shapiro(1990), Haveman and Wolff(2001), Short and Ruggles(2005), Gornick, Sierminska and Smeeding(2009), Brandolini, Magri, and Smeeding(2010) 등이 있다. Oliver and Shapiro(1990)는 '가구가 소유한 금융자산(financial asset)의 가치가 '0' 또는 음(negative)일 경우'를 자산빈곤으로 정의하였는데, 이 기준이 가구가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의 구성 중 대표적인 유동자산(liquid asset), 순자산(net asset)이 제외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Haveman and Wolff(2001)는 Oliver and Shapiro(1990)보다 상세하게 자산빈곤(asset-poor)을 정의하고 있다. 즉, '가구나 개인이 일정기간(period of time) 동안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basic needs)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하지 않은 재산유형의 자원(wealth-type resource)을 가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각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면, '기본적인 욕구'는 4인 가족(부모와 2인 자녀)이 최소한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시켜주는 자원, '일정기간(period of time)'이란 어떠한 사건으로 가구의 수입 공급원이 차단되었을 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산으로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도록 요구 받는 기간(보통 3개월), '재산유형의 자원'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net worth), 가구금융자산을 공제한 순자산, 퇴직연금(IRAs) 등의 연금자산을 제외하고 화폐 전환이 용이한 재정적인 자산과 현금 등을 의미한다. 그들은 또한 절대자산빈곤 개념을 도입하여 재산유형의 자원이 5,000달러 이하를 "절대자산빈곤"이라고 정의하였다.

Short and Ruggles(2005)는 Haveman and Wolff(2001)가 제시한 자산빈곤의 정의를 기초로 노인 여성의 자산빈곤을 분석하였고, Gornick, Sierminska and Smeeding(2009)은 Haveman and Wolff(2001)의 정의 중에서 '일정기간(period of time)'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노인여성의 자산빈곤을 분석하였다.

Brandolini, Magri, and Smeeding(2010)¹⁾은 전기의 순자산이 예비적 저축률과 소득빈곤선의 곱보다 작으면 자산빈곤으로 규정하여 소득충격으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얼마만큼 자산으로 대체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평가하였다. 그들은 기준 상대소득빈곤선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equivalent disposable income) 중위값의 50%로 규정하였고, 연소득빈곤선의 1/4를 절대적 자산빈곤 기준으로 정의하여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의 자산빈곤 관련 연구를 살펴본다. 이태진·신영석·김미곤·노대명(2005), 남상호·권순현(2008), 남상호(2009), 이상은 외 2(2011), 남상호·권순현(2008), 석상훈(2010) 등이 있다. 이태진·신영석·김미곤·노대명(2005)은 자산빈곤선을 추출하고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자산을 순자산이라 정의한 뒤, "부동산 + 동산 + 금융자산 - 부채"방식으로 계산하고, 자산빈곤선을 기준자산에 대한 중위자산의 50%로 설정하였다. 특히, 이들은 자산빈곤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4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한 뒤, OECD기준의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남상호·권순현(2008)는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로써 우리나라의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의 특징, 자산불평등, 자산빈곤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상위 1%가 순자산의 12.0%, 상위 5%는 34.0%, 상위 10%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점유율은 상위 1%가 순자산의 8.2%, 상위 5%는 23.4%, 상위 10%는 36.1%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상대자산빈곤

1) 이들은 자산빈곤을 정의할 때 빈곤(poverty)보다는 취약성(vulnerabi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선을 중위자산의 50% 이하라고 정의하면서 연령대별 자산빈곤률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80대 57.7%, 70대 47.5%, 60대 28.6%로 나타나 예상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자산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빈곤 결정요인을 로짓모형으로써 추정한 결과, 여성일수록, 월세 가구일수록, 가구원 중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일수록 자산빈곤층에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연령이 63세가 될 때까지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그 이후부터는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상의 분석결과들에 근거하여 퇴직 시점에 가까운 근로자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남상호(2009)는 절대소득빈곤과 상대소득빈곤 개념을 자산빈곤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절대자산빈곤을 순자산(가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이 최저생계비 6개월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 상대자산빈곤은 상대소득빈곤의 소득을 순자산으로 대체하여 순자산 중위값의 40%, 50%, 60%에 미달하는 가구로 각각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따라 복지패널 2차 자료로 계산한 절대자산빈곤율은 13.3%, 3차 자료는 12.4%였다. 남상호(2009)에서 자산은 을 의미한다.

석상훈(2010)은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빈곤의 동태적 특성과 자산빈곤층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소득계층간 자산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었다. 둘째, 자산빈곤가구의 규모가 소득빈곤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자산빈곤가구가 소득빈곤가구에 비하여 빈곤상태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빈곤에서 탈출할 위험이 높아 빈곤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산빈곤가구는 소득빈곤가구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소득빈곤계층일수록 자산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은 외 2(2011)은 한국노동패널 2-11차 자료로써 자산빈곤 추이를 살펴보고, Datt and Ravallion(1992)의 분해방법을 이용하여 성장과 분배요인으로 분해한 연구이다.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간 자산 절대액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도 자산빈곤 역시 계속 증가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보여주었다. 둘째, 1999년과 2008년의 분해결과 성장요인에 의해서는 빈곤율이 감소되었지만 분배요인에 의해 빈곤율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빈곤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빈곤 외에 본 연구는 소득빈곤도 함께 논의하기 때문에 소득빈곤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하에서는 주제별로 국내외 연구를 함께 제시하여 논의한다. 먼저, 빈곤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빈곤의 원인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로 McLaughlin and Jensen(1995), Eller(1996), Rank and Hirschl(2001), Iceland(1997b), Stevens(1999), McCulloch(2003), McKernan and Ratcliffe(2005), 김교성·최영(2006), 김안나(2007), 임병인(2009) 등이 있다. McLaughlin and Jensen(1995), Eller(1996), Rank and Hirschl(2001) 등이 기존 빈곤에 관한 이론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여성, 저학력이 빈곤에 진입할 확률이 높이는 원인으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가구주가 청년층일 경우 빈곤 진입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Iceland(1997b), Stevens(1999) 등은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빈곤 탈출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가구주의 연령이 생산가능연령이 아닌 경우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이 줄어 들 수 있음을 보였다. McCulloch(2003)는 편부 또는 편모이거나 자녀의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빈곤에 진입할 확률이 높아

짐을 밝혔으며, 근로자가 고숙련이거나 경제 환경의 활황으로 인해 고용률이 증가하는 경우,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편부모가구는 빈곤 진입 이후 탈출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밝혔다.

McKernan and Ratcliffe(2005)는 가구주의 연령이 낮고, 흑인, 여성 가구주의 경우에 빈곤에 진입할 확률이 증가하나, 고학력 및 가구 구성원의 취업 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에서의 탈출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보였다.

김교성·최영(2006)에서 연령은 근로자의 빈곤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미혼보다 기혼자가 빈곤으로 진입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등이 빈곤으로 진입할 확률은 높다는 점을 보였다.

김안나(2007) 역시 미혼에 비해 기혼자가 빈곤으로 진입할 확률이 낮고, 또한 여성 가구주, 30세 미만보다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가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을 밝혔다.

임병인(2009)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빈곤 및 고용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빈곤 정도를 증가시켰음을 보였다.

소득빈곤 관련 연구 중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특정계층에 한정된 국내·외 연구로는 Aassve, Iacouvou, and Mencariain(2006), Brady and Kall(2008), 석재은(2010), 이경진(2011) 등이 있다. Aassve, Iacouvou, and Mencariain(2006)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청년 빈곤의 상대적 규모가 크고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보수주의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도 적고 완만한 곡선을 나타냈다. 반면, 서유럽의 경우 청년빈곤보다 아동빈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을 보였다.

Brady and Kall(2008)은 1969년에서 2000년까지 선진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전체 여성과 남성의 빈곤율을 분석하였으며, 선진 복지국가에서 여성빈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그 원인을 제시하였다.

석재은(2010)이 있는데, 그는 2009년 제1차 서울복지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공적연금이 노인의 빈곤완화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고소득층은 공적연금소득이 노후생활에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경진(2011)은 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상대빈곤율을 구하였는데,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할 때, 시장소득 기준은 1차 자료는 20.41%, 2차 자료는 20.43%, 3-4차 자료는 19.62%, 5차 자료는 18.41%로 계산되었다.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1차 자료 17.04%, 2차 자료 16.83%, 3차 16.29%, 4차 자료는 15.56%, 5차 자료는 14.29%,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 기준보다 약간 낮았다.

다음으로 빈곤감소 정책의 효과를 다룬 국내외 연구로 Smeeding (2001)과 홍경준(2011)을 들 수 있다. Smeeding (2001)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노령연금이 중간 및 낮은 계층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며,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에는 공공부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Smeeding(2005)은 빈곤정책의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하면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및 독일과 같은 국가들의 사회보험이 상대빈곤의 62~75%를 감소시키는 반면, 공공부조의 경우 핀란드는 상대빈곤의 34%, 영국은 33%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홍경준(2011)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공적 소득이전(소득보장정책과 취업유인정책)에 의해 분배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며,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이전은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광범위해 그 실제적인 효과는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Grootaert and Kanbur(1995)는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지출 빈곤 혹은 소득 빈곤 분석을 시도하였고, Baulch and Hoddinott(2000)는 10개국에 대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의 동학(poverty dynamics)을 분석하였으며, Hoddinott(2003)는 아프리카 국가들로 구성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을 분석하였다.

III. 자산기반 빈곤함정(Asset-based Poverty Trap) 모형²⁾

1. 빈곤측정수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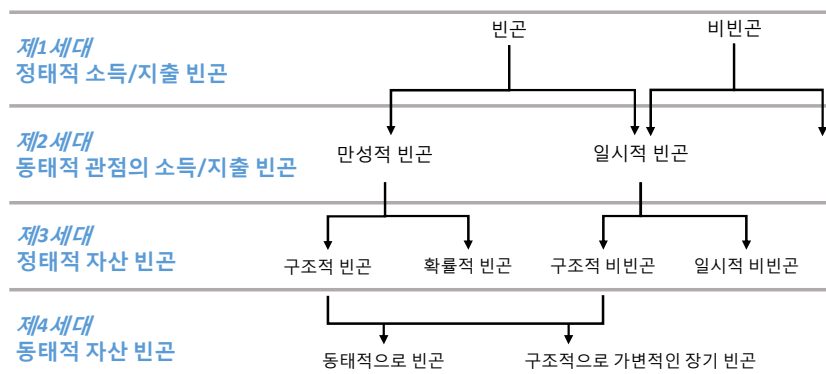
빈곤 또는 빈곤의 측정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시대별로 보고자 한다(Carter and Barrett, 2006)(<그림 1> 참조). 제1세대의 빈곤은 특정 시점에서 횡단면 가구자료의 소득이나 지출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일단 화폐가치로 측정된 빈곤선이 정의되면 전체 인구는 빈곤층과 비빈곤층으로 구분되며, 빈곤층에 해당되는 가구 또는 인구수를 이용하여 빈곤율을 계산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횡단면 자료에 근거한 빈곤측정은 두 가지 상이한 유형의 빈곤을 구분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예를 들어, 빈곤율 33.3%는 동일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빈곤한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전체 인구의 1/3이 확률적으로 무작위 혹은 기타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해 빈곤을 경험하는 것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후자와 같이 해석할 경우 빈곤은 일시적인 현상이 된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가구는 일정한 기간 중의 1/3 기간 동안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1>에서 제2 세대의 빈곤이다. 이는 제1 세대의 빈곤이 제2 세대의 빈곤과 같이 완전히 상이한 사회의 빈곤에 대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와 같은 제1세대와 제2세대의 빈곤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는 동일한 가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하여 조사되는 패널 자료(panel data)에 대한 관심을 돌리게 만들었다(Grootaert and Kanbur, 1995; Baulch and Hoddinott, 2000; Hoddinott, 2003). 제2세대 빈곤측정의 약점은 일시적인 빈곤이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유형의 일시적 빈곤을 가려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빈곤층이 아닌 가구 중에는 불운에 의해 일시적으로 빈곤에 떨어졌다가 다시 비빈곤층으로 회귀하는 가구들이 있는데 이들을 일시적인 비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체계적으로 자산을 축적하여 구조적으로 비빈곤층으로 전환되는 가구, 즉 구조적인 비빈곤층이 있을 수 있다. 같은 논리로 일시적으로 빈곤한 가구들 중에서 운이 나빠 빈곤층에 머무르게 된 가구들과 구조적으로 빈곤층에 잔류하게 된 가구들이 있다. 이것이 제3세대 빈곤이다. 제3세대의 빈곤개념은 빈곤층을 일시적인 빈곤층과 구조적인 빈곤층으로 구분하고, 비빈곤층(부유층) 역시 일시적인 부유층과 구조적인 부유층으로 구분하게 한다는 것이다.³⁾

2) 이하 내용은 김성태 외 (2013)에서 발췌, 인용한 것이다.

한편, 제4세대의 빈곤개념은 빈곤의 동태적인 특성에 착안하여 빈곤을 구분한다. 즉, 장기적으로 정상상태에서 빈곤한 가구와 외부 환경의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전자를 동태적으로 빈곤한 가구라 하고, 후자를 동태적으로 유동적인 빈곤층이라 한다. 동태적 빈곤층과 유동적인 빈곤층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있는 이유는 정부가 빈곤타파 정책을 시행할 때 유동적인 빈곤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경기가 호전되면 자연스럽게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빈곤 측정 수단의 전개



자료 : Carter and Barrett(2006), 김성태 외 4(2013)에서 재인용.

2. 자산빈곤선의 개념: 확률적 빈곤과 구조적 빈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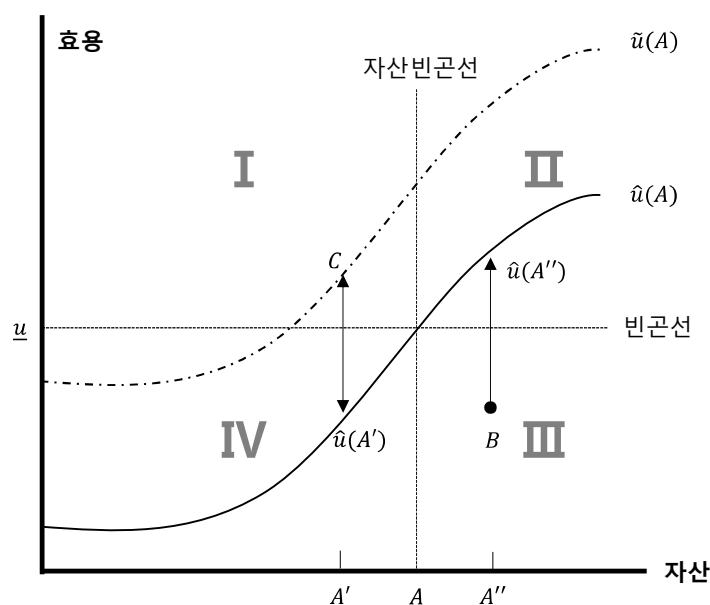
전술한 빈곤 측정수단의 전개과정에서 주요 개념인 자산빈곤에 대하여 논의해본다. 전술한 빈곤의 구조적 전환과정과 확률적 전환과정을 구분하여 분석하려면 자산과 기대효용(소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Carter and May(2001)가 제시한 <그림 2>를 설명해본다. <그림 2>에서 수직축은 소득이나 지출수준으로 측정된 기대후생 또는 기대효용수준을 나타내므로 화폐가치로 측정된 빈곤선은 그림에서 u 가 된다. 수평선은 가구의 효용을 창출하는 자산을 나타낸다. 자산은 여러 자산이 존재하나 하나의 자산으로 총합하여 측정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이는 부동산 및 각종 금융자산의 가치평가액으로 합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자산 수익률에 대한 정보는 자산과 그에 대응하는 기대효용 사이의 관계를 그린 곡선을 <그림 2>에서와 같이 그릴 수 있는데, 이 곡선을 생계함수(livelihood function)라 부른다(Carter and Barrett, 2006). 그림에서 자산 빈곤선(asset poverty line)은 효용 빈곤선 혹은 소득 빈곤선 u 에 대응하는 선 A 와 같다. 생계함수는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자. 이 때 만약 가구가 A 보다 크거나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나 실현된 소득이 u 보다 작으면, 그 가구는 확률적으로 빈곤하다고

3) 지난 20년 간 빈곤 측정에 있어서 두 가지 새로운 접근방법이 주목을 끌고 있다. 첫째는 자산을 기반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인적 개발/능력을 기반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중 자산 기반모형은 Carter and Barrett (2006)이 소개한 모형으로 과거 소득과 소비와 같은 유량(flow)을 중심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자산과 같은 저장(stock)을 중심으로 빈곤을 측정하자는 것이다. 즉, 특정 가구의 자산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빈곤의 함정에 빠져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빈곤선이 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만약 가구의 보유자산이 A 보다 작고 실현된 소득 역시 u 보다 작으면, 그 가구는 구조적으로 빈곤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현재의 실현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기전망의 관점에서 확률적으로 빈곤한 가구가 구조적으로 빈곤한 가구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이상의 논리에 근거할 때, 빈곤 감소정책이 효과적이라면 목표가 장기의 기대 효용수준에 설정되는 것이 좋을 것이므로 현재나 과거의 실현소득으로 설정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자산 빈곤선을 토대로 확률적-구조적 빈곤의 구분이 중요해진다. 참고로 본 연구는 <그림 2>에 제시된 영역을 I, II, III, IV사분면으로 구분하여 그 구성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 구조적 빈곤과 확률적 빈곤의 탈출 또는 진입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림 2> 소득빈곤선과 자산빈곤선: 구조적 빈곤과 확률적 빈곤



자료: Carter and May(2001)

본 연구는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 빈곤선 개념을 소득빈곤에 반영하여 제3 세대 빈곤개념인 구조적 빈곤과 확률적 빈곤(또는 비 빈곤)의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예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 빈곤선 위의 한 점에서 소득빈곤선 아래의 한 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만약 가구의 자산이 자산빈곤선보다 작은 규모의 자산을 소유하여 원래 소득빈곤선 아래의 후생수준을 기대하였던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소득빈곤선보다 크다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므로 이를 확률적인 변동(stochastic transition)이라 한다. 이러한 상황은 <그림 2>에서 최초 $\hat{u}(A')$ 점에 있다가 일시적으로 점 C로 이동한 다음, 다시 점 C로부터 $\hat{u}(A')$ 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자산의 손실에 의해 자산이 자산빈곤선보다 많은 수준에서 자산빈곤선보다 작은 수준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빈곤은 구조적 빈곤(structural poverty)이라고 한다. 이는 <그림 2>에서 최초 자산이 자산빈곤선보다 큰 수준인 A'' 이다가 자산빈곤선보다 작은 수준인 A' 으로 감소되어 후생수준

이 $\hat{u}(A'')$ 에서 $\hat{u}(A')$ 점으로 감소한다. 유사하게 구조적 변동에 의해 소득이 소득빈곤선 위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자산이 축적되어 자산빈곤선보다 작은 수준인 A' 으로부터 자산빈곤선보다 큰 수준인 A'' 로 증가하는 경우 발생한다. 또는 동일한 자산에 대한 수익이 증가하여 생산함수 자체가 $\hat{u}(A)$ 로부터 상향 이동하여 $\tilde{u}(A)$ 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구조적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끝으로 <그림 2>에서 최초 $\hat{u}(A'')$ 점에 있다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소득빈곤선보다 작은 수준인 B 점으로 떨어졌다가, B 점으로부터 다시 $\hat{u}(A'')$ 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역시 확률적인 변동의 하나로써 빈곤을 탈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산 기반 빈곤모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빈곤을 타파할 수 있는 빈곤타파 정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빈곤가구 스스로 자산을 축적하게 만들거나 좀 더 생산성 있는 생산활동에 참가하여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의미있는 정책방안이기 때문이다.

IV. 사용자료 및 실증분석 결과

1. 사용자료⁴⁾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의 7차(2003년 소득기준)-15차(2011년 소득기준) 자료이다. 한국노동패널의 조사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 지역에서 추출한 5,00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해 있는 15세 이상의 인구이다. 표준추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하면,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인 21,675 조사구 중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이를 층화하였으며, 층화의 기준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동일 지역 내에서는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층화방법을 채택하였다. 조사구의 추출방법은 계통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부만을 대상으로 1,000개의 조사구를 선정하고, 각 조사구 내에서는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조사대상가구 중에서 5가구를 임의 선정(random sampling)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구가 추출될 확률은 지역에 상관없이 5.3% 정도이지만, 서울지역과 경기도 시부의 읍·면지역은 추출되어야 할 조사구의 숫자보다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조사구수가 적기 때문에 해당되는 모든 조사구를 포함시키고 조사구당 가구수를 5가구에서 6가수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구를 선정한 후 각 조사구 내에서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에서 조사 성공한 가구들 중 임의추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5~6가구를 선정하였다.

중요한 것은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추출하였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전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한국노동패널은 현재 발표되고 있는 여러 패널자료 중에서 조사기간이 가장 긴 자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의 주제인 소득이동성을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4) 이하 내용은 한국노동패널 홈페이지에서 발췌, 인용한 것이다.

가. 분석대상 표본 추출

본 연구는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을 모두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을 모두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에 7차부터 15차까지 조사기간 내 모두 응답한 3,406가구를 추출하여 균형패널자료(balanced panel)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발표년도 기준으로 7차는 2004년, 15차는 2012년으로 명시하였으나, 실제로 조사 소득은 각각 전년도 기준이어서 2003년과 2011년 소득기준이다. 한편, 자산은 패널조사기간인 매년 7-8월 기준이다.

따라서 소득조사 시점과 자산조사시점이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7차의 경우, 2003년 소득과 2004년 7-8월 조사 자산을 연계하여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을 측정하여 비교한다.

나. 유형별 소득

본 연구의 주제가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의 연계성 분석이므로, 먼저 소득빈곤 산출의 기준인 소득의 유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OECD 기준 소득분류기준에 근거하여 근로소득, 시장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 기준에 근거하여 소득빈곤율을 추계한다 (<표 1> 참조). 한국노동패널자료는 가구소득을 별도로 조사하여 제시하므로 이하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특징적인 것은 노동패널자료에서는 사업소득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에는 사업소득이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에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친인척 등에게서 받은 생활비, 학비 지원 등과 같은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 이전소득, 즉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조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의 정부 이전지출 등을 합산한 것이다.⁵⁾

다. 유형별 자산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는 자산항목들을 다음과 같은 것들을 조사하고 있다. 자산항목에는 부동산을 비롯하여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이 있다. 총 자산에는 ‘소유부동산 시가총액’, ‘전세/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 ‘저축성 보험’, ‘아직 타지않은 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기타’, ‘자동차 현재 시가’로 구성하고 있으며, 부채에는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여야할 계’, ‘기타’로 구성하고 있다.

5) 유의할 것은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에서는 소득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세후 기준이라는 것이다.

<표 1> 『한국노동패널』의 소득유형과 OECD 기준 소득유형의 비교

노동패널					OECD				
소득	비경상 소득	기타 소득 (퇴직금, 급여, 상속, 축의금, 민간보험금)		-					
	경상 소득	근로소득		wage and salary income	1차 소득 (primary income)	시장 소득 (market income)	총 소 득 (Gross Income)	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 = 총소득 - 사회보험료 분담금 - 조세	
		-		self-employment income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property income					
		이전 소득	사적	occupational pension & private transfer	-				
			공적	social insurance & assistance & cash benefit	-	-			
	가구 지출	비소비 지출	공적연금 보험료		사회보험료 분담금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조세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조세							
소비 지출				12개 지출항목(식료품, 보건, 의료 등)					

2. 소득빈곤 및 자산빈곤 개념

주지하다시피 빈곤 개념에는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두 유형이 있다. 절대빈곤 기준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기초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품 및 필수품 획득에 필요한 자원으로 정의한다. 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정책적 또는 공식적인 빈곤선인 최저생계비이다.⁶⁾ <표 2>에는 절대빈곤선 기준으로 사용되는 최저생계비를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제시되어 있다.

상대빈곤은 OECD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40%, 50%, 60%을 빈곤선 기준으로 하는데 일반적인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빈곤선 기준이 50%이다. 본 연구는 절대빈곤선으로 소득빈곤을 정한다. 이제 <표 2>에 제시된 절대빈곤선기준을 이용하여 자산빈곤 기준을 계산해본다. 전술하였듯이 (절대)자산빈곤선은 절대소득빈곤선 기준인 최저생계비의 6개월치로 규정한다 (남상호, 2009). 이를 계산하여 제시한 것이 <표 3>이다. 유의할 것은 절대빈곤율도 가구원수에 따른 빈곤가구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기에 절대자산빈곤 역시 가구원수별로 다르게 정해진 자산빈곤에 해당되는 가구들을 합산하여 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산을 총자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채를

6)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을 각각 최저생계비의 120%, 최저생계비의 150%로 규정하여 빈곤계층과 유사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생계비로 인해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 정책적인 배려라고 볼 수 있다.

감안한 순자산으로 할 것인가 여부이다.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총자산을 기준으로 자산빈곤을 논의 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는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으로 자산빈곤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자산을 기준으로 자산빈곤을 논의한다.

<표 2> 최저생계비 추이

(단위: 원/월)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03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2004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2005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2006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1,542,382
2007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2008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2009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2010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2011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012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013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014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주: 2014년 7인가구는 2,535,925원으로 신규 책정되었음.

<표 3> 절대자산빈곤선 추이

(단위: 원/년)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03	2,134,644	3,535,314	4,862,586	6,116,466	6,954,420	7,847,424
2004	2,209,356	3,659,052	5,032,782	6,330,540	7,197,822	8,122,080
2005	2,408,796	4,011,024	5,447,574	6,817,992	7,817,508	8,866,800
2006	2,509,854	4,202,934	5,635,884	7,022,532	8,119,452	9,254,292
2007	2,615,526	4,406,472	5,837,196	7,233,210	8,432,472	9,657,780
2008	2,778,282	4,705,914	6,159,618	7,595,088	8,927,268	10,273,116
2009	2,945,070	5,014,578	6,487,116	7,959,654	9,432,186	10,904,724
2010	3,026,064	5,152,482	6,665,514	8,178,546	9,691,578	11,204,610
2011	3,195,498	5,440,980	7,038,726	8,636,478	10,234,224	11,831,970
2012	3,320,124	5,653,182	7,313,238	8,973,300	10,633,362	12,293,424
2013	3,433,008	5,845,386	7,561,890	9,278,394	10,994,892	12,711,396
2014	3,620,418	6,164,502	7,974,708	9,784,920	11,595,132	13,405,338

주 : 2014년 7인 가구 절대자산빈곤선은 15,215,550원임.

3. 소득빈곤과 자산빈곤 관련 기초통계량 추이

가. 소득빈곤 관련 기초통계량

전술하였듯이 소득빈곤은 어느 유형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유형별로 절대빈곤율이 다르게 계산될 것이다. 당연히 근로소득보다는 시장소득, 시장소득보다는 경상소득으로 측정한 빈곤율이 낮을 것이다. 이는 결국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빈곤율을 떨어뜨리는데 기여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기에 앞서 연도별로 근로소득과 시장소득, 경상소득의 추이를 전년 대비 변화율과 함께 제시하여 논의해본다(<표 4>와 <그림 1> 참조). 이를 전체 가구와 빈곤가구, 비빈곤가주로 나누어 제시하여 빈곤계층의 소득증감 추이를 살펴본다.

전체가구의 근로소득은 명목기준으로 월 205만원 정도였는데, 매년 증가하다가 금융위기가 촉발된 2008년에는 전년 대비 1.5% 줄었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표 1>에 제시된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것으로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것인데, 가구당 평균 경상소득이 2003년 이후 점증하는 것으로 보아 매년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연도별 유형별 월 평균소득 추이

(단위 : 만원, %)

구분	전체						소득 빈곤계층						소득 비빈곤계층					
	근로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금액	증가 율	금액	증가 율	금액	증가 율	금액	증가 율	금액	증가 율	금액	증가 율	금액	증가 율	금액	증가 율	금액	증가 율
2003	205		232		233		26		37		41		247		279		279	
2004	218	6.4	256	10.3	257	10.4	27	1.6	43	15.5	49	18.5	253	2.6	296	6.2	296	6.3
2005	227	4.4	267	4.4	269	4.5	29	6.4	46	7.6	53	7.8	265	4.6	309	4.5	310	4.6
2006	238	4.7	294	9.9	296	10.0	26	-8.7	48	2.5	56	6.0	278	4.8	340	10.0	341	10.0
2007	257	8.0	303	3.1	305	3.1	23	-12.7	43	-10.3	50	-10.7	300	8.1	351	3.2	352	3.3
2008	253	-1.5	294	-2.9	298	-2.3	25	8.2	43	0.5	55	9.7	303	0.8	349	-0.7	350	-0.5
2009	270	6.6	320	8.8	324	8.9	26	4.9	48	12.0	61	12.0	321	6.0	377	8.1	379	8.2
2010	283	4.9	332	3.8	336	3.8	23	-11.1	47	-1.9	60	-1.8	337	4.9	391	3.8	393	3.8
2011	290	2.6	342	2.8	346	2.7	22	-2.2	49	4.8	64	6.5	342	1.6	398	1.7	400	1.6

자료: 한국노동패널 7-15차 조사.

소득빈곤계층은 근로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의 1/10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다. 눈에 띄는 것은 빈곤계층의 경상소득과 시장소득의 차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비빈곤계층의 평균 공적이전

소득은 경상소득과 시장소득의 차이가 상당히 작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금융위기가 촉발된 2008년은 전체가구와 소득비빈곤계층에게는 모두 전년 대비 줄어들었는데, 소득빈곤계층은 근로소득이 4개 년도에서 전년 대비 줄어들고,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은 2개 년도에서 줄어들고 있다.

<표 5> 가구유형별 주요 연도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추이

구분	전체					소득빈곤층					소득 비빈곤층				
	연령 (세)	교육 수준 (년)	가구 원수 (명)	19세 이하 (명)	성별 (%)	연령 (세)	교육 수준 (년)	가구 원수 (명)	19세 이하 (명)	성별 (%)	연령 (세)	교육 수준 (년)	가구 원수 (명)	19세 이하 (명)	성별 (%)
2003	50.9	10.59	3.29	0.80	84.2	57.6	7.93	2.67	0.55	68.2	49.3	11.23	3.43	0.86	88.1
2004	51.9	10.60	3.25	0.77	83.5	60.7	7.27	2.61	0.53	66.0	50.3	11.22	3.37	0.82	86.8
2005	52.9	10.62	3.22	0.76	82.9	61.6	7.34	2.59	0.53	65.1	51.2	11.24	3.34	0.80	86.3
2006	53.7	10.65	3.18	0.73	82.6	63.2	7.20	2.53	0.48	63.2	52.0	11.30	3.30	0.78	86.2
2007	54.6	10.70	3.12	0.71	82.1	64.8	6.97	2.25	0.36	61.7	52.7	11.40	3.28	0.77	85.9
2008	55.4	10.78	3.08	0.67	82.0	64.8	7.41	2.29	0.36	62.9	53.3	11.51	3.25	0.74	86.1
2009	56.2	10.88	3.05	0.64	81.4	66.6	6.76	2.24	0.38	59.4	54.0	11.74	3.22	0.70	86.0
2010	56.9	10.95	3.01	0.61	81.4	68.1	6.87	2.14	0.29	60.4	54.6	11.79	3.20	0.68	85.7
2011	57.7	10.96	2.99	0.56	81.0	68.8	6.66	2.04	0.26	55.9	55.5	11.79	3.17	0.62	85.8

이어서 전체 가구와 빈곤가구, 그리고 비빈곤가구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를 살펴본다. 전체 가구의 경우,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원수, 19세 이하 자녀수, 가구주 성별 등을 논의한다. 전체가구의 경우, 평균 연령은 2003년 50.9세에서 매년 1세 정도 늘어나서 패널자료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은 약 11년으로 고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3.29명이었다가 점차 줄어들어 최근의 추세인 가구원수 축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수는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남성인 비율은 80%를 넘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상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을 소득빈곤층과 비교하면 연령은 소득비빈곤층보다 약 10세 정도 높고, 교육수준은 약 4세 정도 낮았다. 평균연령은 2003년 58세로 이미 공식적인 노동 시장에서 물러날 나이이고, 이들의 학력 역시 중학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소득빈곤층보다 소득비빈곤층이 약 1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비빈곤층의 19세 이하 가구원수는 소득빈곤층보다 많았다. 가구주 성별은 소득비빈곤층은 연도가 지나면서 다소 줄어들면서 85%로 높지만, 소득빈곤층은 남성 비율이 약 20%정도 낮은 채로 계속 줄어들어 2011년에는 55.9%에 불과하여 점차 여성가구주가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자산빈곤 관련 기초통계량

자산빈곤은 소득빈곤과 달리 유형별로 구분되어 빈곤율이 다르게 계산되지 않는다. 다만, 자산의 유형, 즉 총자산과 순자산에 따른 구분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순자산

에 대해서만 자산빈곤율을 계산하여 제시한다. 이에 앞서 연도별로 총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 추이를 설명한다 (<표 6>와 <그림 2> 참조).

<표 6> 연도별 자산 및 부채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체						자산빈곤계층						자산비빈곤계층					
	총자산		부채		순자산		총자산		부채		순자산		총자산		부채		순자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3	49		27		21		9		32		-23		107		21		86	
2004	65	33.7	31	13.7	34	59.4	11	18.6	36	13.1	-25	11.0	132	23.7	25	20.5	107	24.5
2005	81	23.7	33	5.7	48	40.2	10	-3.5	35	-2.2	-25	-1.6	172	30.5	30	18.8	142	33.2
2006	92	14.8	38	16.3	54	13.8	13	31.5	44	25.6	-31	23.1	172	-0.3	32	8.1	139	-2.1
2007	98	6.5	38	-1.9	61	12.4	12	-14.0	43	-2.9	-31	2.0	192	12.1	32	-1.7	161	15.3
2008	95	-3.1	41	9.1	54	-10.6	14	22.7	47	9.0	-33	4.0	179	-7.0	35	10.3	144	-10.4
2009	96	0.5	43	4.8	53	-2.7	17	19.0	52	11.6	-35	8.3	175	-2.1	34	-3.9	141	-1.7
2010	87	-8.9	46	7.2	41	-21.9	21	25.1	58	11.1	-37	4.4	156	-10.9	34	0.0	122	-13.5
2011	149	70.1	51	10.1	47	14.0	29	35.1	57	-1.4	-38	4.7	266	70.6	44	31.6	131	7.1

자료: 한국노동패널 7-15차 조사.

먼저 전체가구의 총자산 평가액은 2003년 이후 2006년까지 급증하였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소 하락, 2009년 정체, 2010년 하락, 2011년은 기저효과 때문에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달리 부채는 총자산보다 작지만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빈곤계층과 자산비빈곤계층으로 구분하여 논의해보면, 총자산은 자산비빈곤계층이 빈곤계층의 10배 수준이었다 점차 격차가 좁혀지다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부채는 자산빈곤계층은 3개년에 걸쳐 전년도에 비하여 줄어들고 있으면서 비빈곤계층보다 더 많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산빈곤계층은 부채가 보유 자산에 비하여 훨씬 많아 순자산이 음(-)으로 나타났고, 자산비빈곤계층의 순자산은 양(+)이었다.

전체 가구의 기초통계량은 <표 5>에 제시된 소득빈곤층 논의와 동일하여 생략한다. 이하에서는 자산빈곤층과 자산비빈곤층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를 비교해본다 (<표 7> 참조). 자산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하여 연령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고, 교육수준은 약 2세 정도 낮았고, 가구원수는 최근으로 올수록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주 비중은 자산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하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빈곤층과 소득빈곤층을 비교해보면, 가구주 평균연령은 낮고 교육수준이 다소 높았으며, 가구원수는 더 많았고 가구주 성별도 남성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가구유형별 주요 연도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추이

구분	전체					자산빈곤층					자산비빈곤층				
	연령	교육 수준	가구 원수	19세 이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구 원수	19세 이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구 원수	19세 이하	성별
2003	50.9	10.59	3.29	0.80	84.2	50.7	9.95	3.28	0.82	81.3	51.2	11.53	3.30	0.76	88.5
2004	51.9	10.60	3.25	0.77	83.5	51.9	9.89	3.26	0.83	80.1	52.0	11.47	3.24	0.71	87.7
2005	52.9	10.62	3.22	0.76	82.9	52.7	10.05	3.22	0.81	79.8	53.1	11.35	3.23	0.68	87.0
2006	53.7	10.65	3.18	0.73	82.6	53.9	10.01	3.15	0.77	77.7	53.6	11.30	3.21	0.70	87.4
2007	54.6	10.70	3.12	0.71	82.1	55.2	9.79	3.05	0.74	76.0	53.9	11.69	3.19	0.68	88.7
2008	55.4	10.78	3.08	0.67	82.0	56.1	10.05	3.07	0.73	76.4	54.6	11.54	3.10	0.61	87.7
2009	56.2	10.88	3.05	0.64	81.4	56.8	10.01	3.00	0.69	76.4	55.6	11.74	3.11	0.60	86.4
2010	56.9	10.95	3.01	0.61	81.4	57.8	10.02	2.95	0.65	75.8	55.9	11.91	3.09	0.57	87.2
2011	57.7	10.96	2.99	0.56	81.0	58.7	10.01	2.88	0.60	75.3	56.7	11.89	3.10	0.53	86.5

4. 구조적 빈곤과 확률적 빈곤 추이

<그림 2>에서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을 각각 확률적 빈곤, 구조적 빈곤으로, 월 기준 최저생계비의 6개월치를 절대자산빈곤으로 정의한다고 했다. 이제 자산빈곤과 소득빈곤의 두 개념을 이용하여 구조적 빈곤과 확률적 빈곤을 논의해본다 (<표 8> 참조).

<표 8>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의 연계: 구조적 빈곤과 확률적 빈곤 추이

(단위: 가구수, %)

구분	연도	자산 빈곤			자산 비빈곤		
		근로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소득 비빈곤	2003	1393 (40.9)	1518 (44.6)	1533 (45.0)	1093 (32.1)	1210 (35.5)	1212 (35.6)
	2004	1333 (39.1)	1476 (43.3)	1505 (44.2)	1211 (35.6)	1386 (40.7)	1389 (40.8)
	2005	1366 (40.1)	1537 (45.1)	1567 (46.0)	1160 (34.1)	1333 (39.1)	1339 (39.3)
	2006	1183 (34.7)	1342 (39.4)	1379 (40.5)	1319 (38.7)	1513 (44.4)	1521 (44.7)
	2007	1235 (36.3)	1408 (41.3)	1436 (42.2)	1287 (37.8)	1454 (42.7)	1463 (43.0)
	2008	1167 (34.3)	1336 (39.2)	1392 (40.9)	1256 (36.9)	1443 (42.4)	1457 (42.8)
	2009	1120 (32.9)	1284 (37.7)	1355 (39.8)	1289 (37.8)	1504 (44.2)	1517 (44.5)
	2010	1125 (33.0)	1311 (38.5)	1390 (40.8)	1271 (37.3)	1481 (43.5)	1498 (44.0)
	2011	1066 (31.3)	1280 (37.6)	1357 (39.8)	1318 (38.7)	1546 (45.4)	1564 (45.9)
소득 빈곤	2003	667 (19.6)	542 (15.9)	527 (15.5)	253 (7.4)	136 (4.0)	134 (3.9)
	2004	578 (17.0)	435 (12.8)	406 (11.9)	284 (8.3)	109 (3.2)	106 (3.1)
	2005	589 (17.3)	418 (12.3)	388 (11.4)	291 (8.5)	118 (3.5)	112 (3.3)
	2006	566 (16.6)	407 (12.0)	370 (10.9)	338 (9.9)	144 (4.2)	136 (4.0)
	2007	573 (16.8)	400 (11.7)	372 (10.9)	311 (9.1)	144 (4.2)	135 (4.0)
	2008	632 (18.6)	463 (13.6)	407 (12.0)	351 (10.3)	164 (4.8)	150 (4.4)
	2009	631 (18.5)	467 (13.7)	396 (11.6)	366 (10.8)	151 (4.4)	138 (4.1)
	2010	659 (19.4)	473 (13.9)	394 (11.6)	351 (10.3)	141 (4.1)	124 (3.6)
	2011	680 (20.0)	466 (13.7)	389 (11.4)	342 (10.0)	114 (3.4)	96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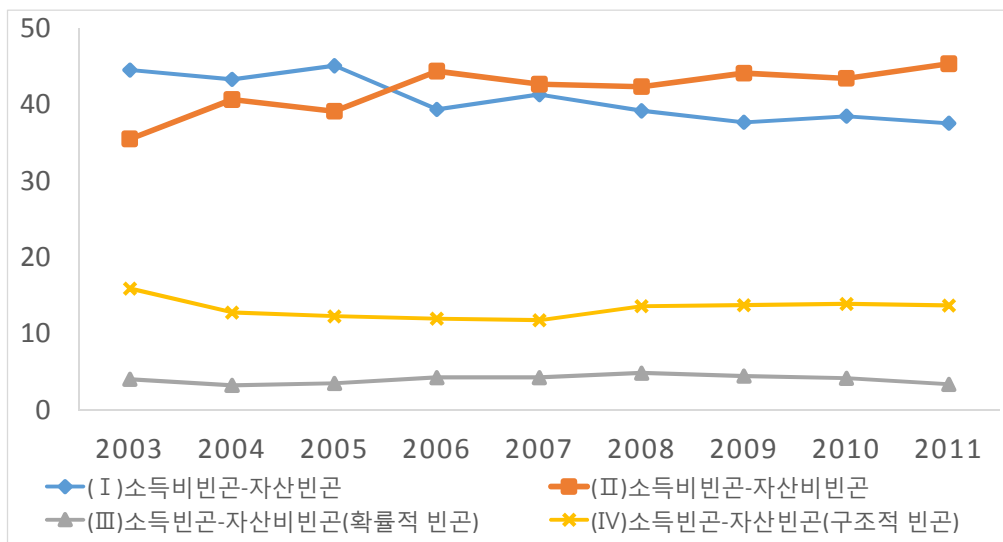
본 연구는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을 연계하여 분석하므로 동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이라도 소득유형별로 빈곤율이 다르게 계산된다. 따라서 그에 따라 자산빈곤을 연계하면 구조적 빈곤과 확률적 빈

곤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구조적 빈곤에 대하여 논의해본다 (<그림 3> 참조). 근로소득 기준으로 2003년이 19.6%였는데, 이후 2006년까지 다소 하락하다가 이후에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까지 다소 떨어진 것은 당시에는 아파트를 비롯하여 자산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에 기인하여 구조적 빈곤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장소득기준으로 바꾸면 추세가 2007년까지 하락하다가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연도별로 규칙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빈곤유형별 분포 추이

(단위 : %)



한편, 확률적인 빈곤은 근로소득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근로소득 기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졌고, 이 역시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 기준으로 보면 다소 낮아져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적 빈곤에 속하는 계층들을 보면 (<표 9> 참조), 부채가 부동산자산 및 금융자산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아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단 소득빈곤에 떨어지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의 공적 지원이 아니면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빈곤도 그냥 빈곤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빈곤상태에 빠져있다고 보는 이유이다. 이에 반해 확률적 빈곤은 특징적이게 자산규모는 구조적 빈곤계층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고, 부채는 작아 자산구조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이고, 반면에 근로소득은 구조적 빈곤계층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장소득은 2007년 이후에는 확률적 빈곤에 속한 계층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률적 빈곤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전반적으로 빈곤상태가 구조적 빈곤에 비하여 자산과 소득 두 측면에서 더욱 양호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9> 소득빈곤-자산빈곤가구의 소득 및 자산현황

(단위: 만원)

구 분	소득 및 자산유형		자산					
			빈곤			비빈곤		
			2003	2007	2011	2003	2007	2011
소득 비 빈 곤	자 산 유 형	부동산자산	749.2	1,005.7	1,854.4	7,398.5	15,549.6	13,747.3
		금융자산	380.8	415.0	573.3	3,641.2	4,343.6	4,274.5
		부채	3,610.5	4,944.8	6,917.1	2,151.2	3,373.7	4,612.2
	소 득 유 형	근로소득	220.9	253.7	298.8	278.2	342.9	374.8
		시장소득	240.6	286.9	336.8	323.9	409.6	444.6
		경상소득	240.9	288.1	339.6	324.1	410.4	445.9
소득 빈 곤	자 산 유 형	부동산자산	166.0	197.8	260.5	4,725.1	9,360.4	6,306.3
		금융자산	58.2	58.1	53.6	2,375.2	2,445.3	3,378.2
		부채	1,938.8	2,020.0	2,396.0	1,492.3	962.7	1,555.0
	소 득 유 형	근로소득	28.4	23.2	23.7	18.5	21.4	17.0
		시장소득	38.0	41.2	47.8	34.8	47.3	56.8
		경상소득	42.5	50.1	64.2	36.6	49.4	64.1

주: 시장소득 기준이며, 소득은 월평균 소득을 나타냄.

<표 10> 소득-자산 빈곤 유형별 분포 추이

(단위 :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I	소득비빈곤- 자산빈곤	44.57	43.34	45.13	39.4	41.34	39.22	37.7	38.49	37.58
II	소득비빈곤- 자산비빈곤	35.53	40.69	39.14	44.42	42.69	42.37	44.16	43.48	45.39
III	소득빈곤- 자산비빈곤	3.99	3.2	3.46	4.23	4.23	4.82	4.43	4.14	3.35
IV	소득빈곤- 자산빈곤	15.91	12.77	12.27	11.95	11.74	13.59	13.71	13.89	13.68
빈 곤 율	소득빈곤율 (III+IV)	19.90	15.97	15.73	16.18	15.97	18.41	18.14	18.03	17.03
	자산빈곤율 (I + IV)	60.48	56.11	57.40	51.35	53.08	52.81	51.41	52.38	51.26

소득-자산 빈곤 유형 분포 추이를 보면 (<표 10> 참조), 소득비빈곤-자산빈곤(Ⅰ)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이 2003년 44.57%에서 연도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37.58%에 이르렀다. 소득비빈곤-자산비빈곤(Ⅱ) 해당 가구 비율도 2003년 35.53%에서 2011년 45.39%로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소득빈곤계층에 해당하는 소득빈곤-자산비빈곤(Ⅲ)과 소득빈곤-자산빈곤(Ⅳ)은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작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확률적 빈곤층인 소득빈곤-자산비빈곤(Ⅲ) 가구는 2003년 3.99%에서 2008년 4.82%로 증가하였다가 2011년 3.35%로 낮은 수준이다. 구조적 빈곤층이라고 보는 소득빈곤-자산빈곤(Ⅳ) 가구비율은 2003년 15.91%에서 2007년 11.74%로 낮아졌다가 2008년 이후 계속 13%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 구조적 빈곤과 확률적 빈곤의 이행 확률 추이

이하에서는 연도별 이행행렬을 통하여 1년 동안 빈곤계층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11>의 이행행렬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7차 조사 Ⅰ분면에 해당하는 가구가 1,518가구 중 8차 조사 Ⅳ분면에 해당하는 가구가 105가구로 6.9%가 이행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인 확률적 빈곤층(Ⅲ)과 구조적 빈곤층(Ⅳ)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확률적 빈곤층(Ⅲ)의 경우 다음 연도로 이행한 결과를 보면, Ⅰ~Ⅳ분면에 고르게 이동하며 즉각적으로 상태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일시적 소득 빈곤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7차-8차 이행행렬을 보면 Ⅲ분면에서 Ⅰ분면으로 이동할 확률이 19.1%, Ⅱ분면으로 이동할 확률이 35.3%, Ⅲ분면에 잔류 확률 27.2%, Ⅳ분면으로 이동할 확률이 18.4%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연도별 이행행렬 추이

구분		8차(2004)				합계	구분		9차				합계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7차	Ⅰ	990 (65.2)	405 (26.7)	18 (1.2)	105 (6.9)	1,518	8차	Ⅰ	1019 (69)	332 (22.5)	14 (0.9)	111 (7.5)	1,476
	Ⅱ	286 (23.6)	873 (72.1)	24 (2)	27 (2.2)	1,210		Ⅱ	371 (26.8)	949 (68.5)	38 (2.7)	28 (2)	1,386
	Ⅲ	26 (19.1)	48 (35.3)	37 (27.2)	25 (18.4)	136		Ⅲ	24 (22)	21 (19.3)	42 (38.5)	22 (20.2)	109
	Ⅳ	174 (32.1)	60 (11.1)	30 (5.5)	278 (51.3)	542		Ⅳ	123 (28.3)	31 (7.1)	24 (5.5)	257 (59.1)	435
합계		1476 (43.3)	1386 (40.7)	109 (3.2)	435 (12.8)	3,406	합계		1537 (45.1)	1333 (39.1)	118 (3.5)	418 (12.3)	3,406

구분		10차				합계	구분		11차				합계
		I	II	III	IV				I	II	III	IV	
9차	I	948 (61.7)	451 (29.3)	21 (1.4)	117 (7.6)	1,537	10차	I	896 (66.8)	342 (25.5)	17 (1.3)	87 (6.5)	1,342
	II	281 (21.1)	986 (74)	50 (3.8)	16 (1.2)	1,333		II	372 (24.6)	1059 (70)	48 (3.2)	34 (2.2)	1,513
	III	12 (10.2)	35 (29.7)	40 (33.9)	31 (26.3)	118		III	32 (22.2)	30 (20.8)	49 (34)	33 (22.9)	144
	IV	101 (24.2)	41 (9.8)	33 (7.9)	243 (58.1)	418		IV	108 (26.5)	23 (5.7)	30 (7.4)	246 (60.4)	407
합계		1342 (39.4)	1513 (44.4)	144 (4.2)	407 (11.9)	3,406	합계		1408 (41.3)	1454 (42.7)	144 (4.2)	400 (11.7)	3,406

구분		12차				합계	구분		13차				합계
		I	II	III	IV				I	II	III	IV	
11차	I	888 (63.1)	352 (25)	39 (2.8)	129 (9.2)	1,408	12차	I	848 (63.5)	362 (27.1)	22 (1.6)	104 (7.8)	1,336
	II	346 (23.8)	1037 (71.3)	38 (2.6)	33 (2.3)	1,454		II	313 (21.7)	1055 (73.1)	39 (2.7)	36 (2.5)	1,443
	III	17 (11.8)	34 (23.6)	62 (43.1)	31 (21.5)	144		III	24 (14.6)	48 (29.3)	49 (29.9)	43 (26.2)	164
	IV	85 (21.3)	20 (5)	25 (6.3)	270 (67.5)	400		IV	99 (21.4)	39 (8.4)	41 (8.9)	284 (61.3)	463
합계		1336 (39.2)	1443 (42.4)	164 (4.8)	463 (13.6)	3,406	합계		1284 (37.7)	1504 (44.2)	151 (4.4)	467 (13.7)	3,406

구분		14차				합계	구분		15차				합계
		I	II	III	IV				I	II	III	IV	
13차	I	842 (65.6)	334 (26)	21 (1.6)	87 (6.8)	1,284	14차	I	862 (65.8)	347 (26.5)	13 (1)	89 (6.8)	1,311
	II	332 (22.1)	1090 (72.5)	46 (3.1)	36 (2.4)	1,504		II	305 (20.6)	1123 (75.8)	29 (2)	24 (1.6)	1,481
	III	25 (16.6)	35 (23.2)	54 (35.8)	37 (24.5)	151		III	24 (17)	50 (35.5)	50 (35.5)	17 (12.1)	141
	IV	112 (24)	22 (4.7)	20 (4.3)	313 (67)	467		IV	89 (18.8)	26 (5.5)	22 (4.7)	336 (71)	473
합계		1311 (38.5)	1481 (43.5)	141 (4.1)	473 (13.9)	3,406	합계		1280 (37.6)	1546 (45.4)	114 (3.3)	466 (13.7)	3,406

주 : () 안의 값은 행합계 대비 비중을 나타냄.

둘째, 구조적 빈곤층(IV)은 구조적 빈곤 함정에서 벗어날 확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IV분면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확률이 연도별로 증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V분면에 잔류할 확률은 7-8차 51.3%에서 8-9차 59.1%, 9-10차 58.1%, 10-11차 60.4%, 11-12차 67.5%, 12-13차 61.3%, 13-14차 67.0%, 14-15차 71.0%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이행확률로 보면 장기적으로 7차 IV분면 542가구 중 15차 조사당시 40.6%인

220가구가 여전히 IV분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구조적 빈곤층(IV)이 소득이 증대되어 소득빈곤층에서 탈출하여 소득 비빈곤층으로 이행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자산 빈곤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⁷⁾. 다만, 장기 이행행렬을 통해서 보면, 542가구 중 IV분면에서 112(20.7%)가구가 II분면으로, 182(33.6%) I 분면으로 이동하여 총 54.3%가 장기적으로 자산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산빈곤 탈출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책을 통한 자산빈곤층 완화를 위한 정책시행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넷째, 소득비빈곤층인 I 분면, II분면에 해당되는 가구의 경우 소득빈곤에서 소득비빈곤으로 이행하는 확률(I 또는 II→III또는IV)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산의 변동으로 인한 자산변화(I↔II)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 장기 이행 확률 : 7차~15차

		15차				합계
		I	II	III	IV	
7차	I	706 (46.5)	638 (42.0)	28 (1.8)	146 (9.6)	1,518
	II	363 (30)	747 (61.7)	46 (3.8)	54 (4.5)	1,210
	III	29 (21.3)	49 (36)	12 (8.8)	46 (33.8)	136
	IV	182 (33.6)	112 (20.7)	28 (5.2)	220 (40.6)	542
합계		1280 (37.6)	1546 (45.4)	114 (3.3)	466 (13.7)	3,406

V.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한국노동패널 7-15차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빈곤을 소득과 자산기준으로 4분하여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에 동시에 직면하는 구조적 빈곤과 소득은 빈곤하나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확률적 빈곤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소득빈곤계층은 근로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의 1/10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고, 유의하여 볼 것은 빈곤계층에 지급되는 공적 이전소득이 2003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둘째, 소득빈곤층 연령은 소득비빈곤층보다 약 10세 정도 많은 58세로 노동시장에서 거의 은퇴할 만한 연령이고, 학력도 중졸 수준으로 낮았다. 소득빈곤층의 남성 가구주 비중이 매년 하락하여 점차 여성가구주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산비빈곤계층의 총자산은 자산빈곤계층의 10배 수준이나 둘 사이의 격차가 점차 좁아지다가 다시 커지고 있고, 부채는 자산빈곤계층이 비빈곤계층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빈곤계층의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하여 순자

7) 구조적 빈곤층(IV)이 자산빈곤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IV→III, IV→II으로 이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소득 빈곤을 벗어나는 경우는 IV→I, IV→II으로 이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산이 음(-)인 반면에 자산비빈곤계층은 양(+)이었다. 넷째, 구조적 빈곤은 근로소득 기준으로 2003년 (19.6%) 이후 2006년까지 당시의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해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이후에 증가하고 있다. 시장소득기준으로는 2007년까지 하락, 이후 증가 추세를,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연도별로 규칙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빈곤계층은 부채가 부동산자산 및 금융자산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아 일단 소득빈곤에 떨어지면 자산이 거의 없어 말 그대로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확률적인 빈곤은 근로소득기준으로 전반적인 증가추세, 시장소득 기준으로 미미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이 낮아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확률적 빈곤계층의 자산규모는 구조적 빈곤계층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고, 부채는 작아 자산구조 자체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특히, 시장소득 기준 확률적 빈곤율을 보면 구조적 빈곤에 비하여 자산과 소득 두 측면에서 양호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이행확률의 추이에 따르면, 확률적 빈곤층은 일시적 소득 빈곤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음에 반해, 구조적 빈곤층(IV)은 빈곤 함정에서 벗어날 확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기 이행확률을 보면 장기적으로 7차의 구조적 빈곤에 직면한 542가구 중 15차 조사당시 40.6%인 220가구가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분석결과는 구조적 빈곤층의 소득이 증대되어 소득빈곤에서 벗어나더라도 단기적으로 자산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다만, 장기 이행행렬 추정결과에 따르면, 542가구 중 54.3%가 자산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구조적 빈곤을 개선하여 당분간 확률적 빈곤 또는 자산비빈곤계층으로 이행시키려면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더 나아가 빈곤계층의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자산빈곤 탈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강성민·유태균 (2009), 「자산빈곤이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1호, pp. 115-138
- 김교성·최영(2006), 「근로계층의 빈곤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58, pp. 119-141.
- 김성태·김승래·김진,영·임병인·전영준(2013), 『우리나라의 빈곤 함정』, 해남출판사.
- 김안나(2007), 「한국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Vol.29, pp. 145-168.
- 남상호 (2009), 「저소득층의 자산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상호(2007),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현황과 시사점”, 2007년 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남상호·권순현 (2008),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28권 제2호, pp. 3-32
- 석상훈 (2011), 「자산빈곤과 빈곤지속」,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2호, pp. 163-186

석상훈·김현수(2012), 「노인빈곤의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생애 근로이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제정학연구』, 제5권 제3호, pp. 99-124.

석재은(2010),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 효과 및 효율성: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Vol.37, No.3, 193-214.

이경진(2011), 「2005~2009년 주요 집단별 소득수준의 변화와 빈곤율 변화」,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은·이은혜·정찬미(2011), 「한국에서 자산빈곤의 변화추이와 요인분해」, 『보건사회연구』 31(3), pp.3-37.

이태진·신영석·김미곤·노대명(2005),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 시행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병인(2009),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빈곤복지정책 현황과 역할」, 국제무역경영연구원,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Institute Review, 15권, 1, pp. 59-91.

홍경준(2011), 「공적 소득이전의 분배효과분석: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Vol.38, No.2, pp. 65-88.

Aassve, Iacouvou, and Mencarinin(2006), “*Youth Poverty and Transition to Adulthood in Europe*”, Demographic Research, 15(2), pp. 21-50.

Brady and Kall (2008), “*Nearly Universal, But Somewhat Distinct: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n Affluent Western Democracies, 1969-2000*”, Social Science Research, 37, pp. 976-1007.

Caner, N.A. and E.N. Wolff (2004), “*Asset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1984-1999: Evidence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50, No.4, 493-518

Carter, Michael R. and J. May(2001), “One Kind of Freedom: The Dynamics of Poverty in Post-Apartheid South Africa,” World Development 29, pp. 1987-2006.

Eller(1996), “*Who Stays Poor? Who Doesn't?*” Current Population Reports, Dynamics of Economic Well-Being, Poverty 1992-1993

Haveman and Wolff(2001), “*Who Are the Asset Poor?: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1983-1998*,”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Discussion Paper no. 1227-01.

Haveman, R. and E.N. Wolff (2004), “*The Concepts and Measurement of Asset Poverty: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1983-2001*,”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Vol.2, No.2

Iceland(1997b), “*Urban Labor Markets and Individual Transitions Out of Poverty*,” Demography, 34(3), pp. 429-441.

McCulloch(2003), “*Local Labour Markets and Transitions Into and Out of Poverty: Evidence from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Waves 1 to 8*,” Environment and Planning, 35, pp. 551-568.

McKernan and Ratcliffe(2005), “*Events that Trigger Poverty Entries and Exits*,” Social Science Quarterly, 86, pp. 1146-1169.

McLaughlin and Jensen (1995), “*Becoming Poor: The Experience of Elders*,” Rural Sociology,

60(2), pp. 202-223.

Rank and Hirschl(2001), "*The occurrence of poverty across the life cycle: Evidence from the PSID*,"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0, pp. 737-755.

Rank and Hirschl(2010), "*Estimating the Life Course Dynamics of Asset Povert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No, 10-25.

Sherraden(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 E. Sharpe.

Smeeding(2001), "*Income Maintenance in Old Age: What Can be Learned from Cross-National Comparisons*,"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Working Papers 2001-11.

Smeeding(2005), "*Public Policy, Economic Inequality, and Poverty: The United Stat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Science Quarterly, 86(s), 955-984.

Stevens(1999), "*Climbing Out of Poverty, Falling Back In: Measuring the Persistence of Poverty Over Multiple Spell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4(3), 567-588.